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73호 【루게 제24951호】 주제104 (2015)년 6월 22일 (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선군조선의 첫 여성초음속전투기비행사 탄생 영웅조선의 효녀, 선군조선 하늘의 꽃 조금향, 림설동무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여성초음속전투기비행사 조금향, 림설동무들의 비행훈련을 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여성초음속전투기비행사 조금향, 림설동무들의 비행훈련을 보시였다.

황병서 동지, 오금철 동지, 리병철 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인 항공공상장 최영호 동지, 정치위원인 항공군중장 손철주 동지가 영접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추격기비행사로 자라난 조금향, 림설동무들의 비행훈련을 여러차례 보아주시고 조선여성의 기개를 과시한 영웅조선의 효녀, 훈련영웅들이라고 치하시면서 그들을 초음속전투기비행사로 준비시킬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하늘같은 믿음을 심장깊이 간직한 조금향, 림설동무들은 남자들도 험치 않아하는 비행훈련과제



수행하는 여성전투비행사들의 훈련모습을 지켜보시며 저렇게 용감무쌍한 훈련모습을 보니 대단히 기쁘다고 하시면서 남성들도 라기 힘든 초음속전투기를 처녀들이 단독으로 탄다는것은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성과이라고, 기쁘하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여성전투비행사들의 조종술이 놀라울 정도로 높아졌다고 하시면서 높은 정신력을 지니였기에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했다고, 조금향, 림설동무들은 모든 군인들이 당의 훈련방침을 어떻게 관

찰해야 하는가를 실천적으로 보여준 거울이며 본보기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훈련이 끝난 다음 여성전투비행사들인 조금향, 림설동무들을 만나시어 그들의 비행훈련 성과를 축하해주시였다.

를 이악하게 수행함으로써 전환 훈련을 시작한 때로부터 짧은 기간에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주신 영예로운 임무를 빛나게 수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비행장활주로에 나가시어 여성전투비행사들의 리차 특단독비행훈련계획을 료해하시교 훈련을 보시였다.

꿈결에도 그리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 초음속전투기를 타는 자기들의 모습을 보여드릴 시 각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훈련하고 또 훈련해온 여성전투비행사들은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안겨주신 담력과 배짱을 안고 출격의 폭음을 울리며 대지를 박차고 창공으로 날아올라 자기들의 비행술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여성전투비행사들의 단독비행모습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며 나아린 처녀들이 정말 용다고, 하늘의 꽃이라고, 건군사에 처음으로 여성초음속전투기비행사들이 태여났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첫 단독비행을 진행하는 날 불의에 제기된 정황들까지 맴시있게 척척

2 번 으 로 계 속



선군조선의 첫 여성초음속전투기비행사 탄생

영웅조선의 효녀, 선군조선 하늘의 꽃 조금향, 림설동무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여성초음속전투기비행사 조금향, 림설동무들의 비행훈련을 보시였다

1 면 에 서 계 속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꽃다발을 받아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조금향, 림설동무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면서 세계적으로도 초음속전투기를 타는 여성비행사들은 불과 몇개 나라밖에 없는데 이 동무들이 단독비행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고, 이것은 결코 육체적조건과 기술적준비상태가 좋아서가 아니라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 투철한 조국수호정신을 간직하고 우리 당의 훈련제일주의방침을 사상적으로 접수하고 최고사령관의 뜻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숭고한 혁명정신의 발현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오늘은 첫 여성초음속전투기비행사들이 래어난 날이라고 하시면서 이 소식이 전해지면 온 나라, 특히 우리 여성들이 높이 평가하시며 그들을 곁에 기뻐할것이라고, 동무들이야말로 조국과 인민의 장한 딸, 불굴의



정치위원이 함께 찾아가 훌륭한 딸을 둔 이들의 부모들에게 자신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여성전투비행사들이 유능한 전투비행사로 더욱 역세계 준비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수행하여야 할 비행훈련목표를 정해주시였다.

선군조선의 첫 여성초음속전투기비행사로 자라난 조금향, 림설동무들은 조국의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날수 있는 날개를 달아주시고 슬기와 담력을 안겨주시였으며 영광과 행복의 최절정에 세워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솟구치는 눈물을 견잡지 못하면서 당의 출격명령이 내리면 구름속천리, 불길속만리를 용감하게 헤치며 김정은결사옹위의 향로를 맨 앞장에서 날아갈 불타는 결의를 다짐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여성혁명가들이라고 거듭 거듭 자기 딸들이 초음속전투기를 타고 사회주의조국의 하늘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부모들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고 하시면서 조금향, 림설동무들을 집에 보내여 오늘의 훈련성과를 자랑하게 하자고, 항공군사령관과



북남관계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은 겨레가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에 대한 커다란 기대와 열망을 안고 맞이한 뜻깊은 이해도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있다. 하지만 지금 북남관계는 겨레의 지향과 요구와는 너무나 판이하다. 남조선 당국의 시대착오적인 반공화국적대행위와 외세와 야합한 끊임없는 북침전쟁영습소동으로 북남관계의 파국상태는 나날이 엄중화 국면으로 치닫고있으며 조선반도에서는 전쟁위험만이 시시각각으로 커지고있다.

북과 남은 하루빨리 대결을 끝내내고 화합과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자면 우리 공화국정부가 성명을 통하여 친명화합의 길이 북남관계와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생명선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통일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북남관계와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은 북과 남이 합의하고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을 통해 민족앞에 확약한 민족공동의 통일원칙이다.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 근본력은 자주의 원칙을 담은 우리민족끼리원칙이다. 선언이 발표되자마자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지와 찬동을 받은것은 거기에 우리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를 담은 우리민족끼리원칙이 담겨져있기때문이다. 6.15공동선언에 의해 자주통일시대가 열리고 민족분열사상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북남관계발전의 경이적인 사변들이 펼쳐진것은 우리민족끼리원칙이 안아온 결실이다. 6.15공동선언이 리행되는 나날에 우리 겨레는 북과 남은 멀어져서는 못할 하나의 민족이며 자주의 원칙,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 설

때 북남관계에서 해결 못할 난문제만 있을수 없다는것을 제부로 절감하였다.

10.4선언은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재확인함으로써 자주의 원칙을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으로 다시금 내외에 엄숙히 선포하였다. 자주의 원칙이야말로 그 누구도 감히 부정할수 없고 온 민족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있는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이다.

그 누구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겨레의 지향과 요구를 거역할수 없다.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북남관계,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은 조국통일을 위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생명선이다.

북과 남은 응당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가리키는데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외세에 의존하고 그와 공조하는것은 동족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키고 북남관계는 파국으로 몰아넣는 미국반역행위이다.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꼬물만 한신신도 없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신에 배척되게 외세에 의존하고 그와 공조함으로써 북남관계발전의 귀중한 성과들을 모조리 파괴하였다. 그들은 온 민족과 전세계의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그 무슨 《감상적통일론》으로 비하하였는가 하면 《공공적분문지》이니, 《정체성체손》이니 하는 악담을 퍼부으면서 선언들의 리행을 가로막았다. 그리고 북남관계문제는 우리 민족끼리원칙을 가지고는 해결할수 없다고 피대를 구면서 침략적인 외세와의 공조를 기승을 부리었다.

현 남조선집권세력의 친미시대미국행

위는 사상 최악에 이르렀고있다. 그들은 민족공조의 노력으로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가 여러차례 마련되였다. 하지만 그것이 우여곡절 끝에 파탄되게 된것은 남조선당국이 외세의 종의 악습을 버리지 않고 미국과 함께 동족대결소동에 광분하였기때문이다. 외세에 적극 추종하며 그와 야합하여 동족을 해치려는 괴뢰들의 반역적정체는 그들이 미국의 각본에 따라 반공화국(인원)소동과 뼈라살포망동에 열을 올리고 대규모적인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번갈아가며 강행하고있는데서도 날마다 드러나고있다. 지금에 와서 명백해진다와 같이 남조선집권세력이 북남대화의 길을 거듭 망쳐놓은것은, 《5.24조치》의 철폐를 거부하는것과 북남협력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한것도 어떻게 하나 외세와의 공조로 반공화국압살야망을 실현하기 위한다 그 목적이 있었다.

민족자주, 민족공조를 반대하면서 사대와 외세의존에 계속 매달리는 남조선 보수집권세력의 반민족적당동으로 하여 북남관계는 외세의 대조선적대정책의 희생물이 되고있다.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문제, 통일문제를 외세에게 내맡기면서 그에 의존하여 동족을 해치려는 반민족적인 국제공조놀음을 걸어치워야 한다. 그것으로 하여 차례질것은 수치와 굴종, 북남관계파국과 전쟁밖에 없다.

민족을 오직 우리 민족이며 북과 남이 힘을 합치면 극복 못할 난관이 없고 못헤낼 일이 없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수습하고 민족적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의 전향적국면을 열어나가는 우리의 립장에 변함이 없다.

남조선당국은 우리 민족끼리 북남관계와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남조선에서 현 《정권》의 출현이후 우리의 적극적 노력으로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가 여러차례 마련되였다. 하지만 그것이 우여곡절 끝에 파탄되게 된것은 남조선당국이 외세의 종의 악습을 버리지 않고 미국과 함께 동족대결소동에 광분하였기때문이다. 외세에 적극 추종하며 그와 야합하여 동족을 해치려는 괴뢰들의 반역적정체는 그들이 미국의 각본에 따라 반공화국(인원)소동과 뼈라살포망동에 열을 올리고 대규모적인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번갈아가며 강행하고있는데서도 날마다 드러나고있다. 지금에 와서 명백해진다와 같이 남조선집권세력이 북남대화의 길을 거듭 망쳐놓은것은, 《5.24조치》의 철폐를 거부하는것과 북남협력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한것도 어떻게 하나 외세와의 공조로 반공화국압살야망을 실현하기 위한다 그 목적이 있었다.

민족자주, 민족공조를 반대하면서 사대와 외세의존에 계속 매달리는 남조선 보수집권세력의 반민족적당동으로 하여 북남관계는 외세의 대조선적대정책의 희생물이 되고있다.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문제, 통일문제를 외세에게 내맡기면서 그에 의존하여 동족을 해치려는 반민족적인 국제공조놀음을 걸어치워야 한다. 그것으로 하여 차례질것은 수치와 굴종, 북남관계파국과 전쟁밖에 없다.

민족을 오직 우리 민족이며 북과 남이 힘을 합치면 극복 못할 난관이 없고 못헤낼 일이 없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수습하고 민족적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의 전향적국면을 열어나가는 우리의 립장에 변함이 없다.

남조선당국은 우리 민족끼리 북남관계와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총련 일군들 이

총련일군들이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기치마라 북남관계발전의 전향적국면을 열어나갈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지지하여 18일 담화물을 발표하였다.

김정수 제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문예동) 중앙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문예동들의 작가, 예술인들 반세기나 넘게 지속되어온 불신과 대결을 해소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화해와 단합, 통일로 나아가는 새시대에는 온 겨레를 불러준 북남수뇌상봉과 6.15공동선언의 채택 그리고 6.15통일시대에 마련된 놀라운 전진과 성과를 다시금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수행에서 결정적인 해로 되도록 하는데 모든 힘을 다해나갈것이라고 그는 피력하였다.

6.15통일시대의 감각과 화해를 생각할수록 외세에 빌붙어 북남공동선언을 반사코는 열정을 산채나감으로 조선천연으로서 시대에 걸친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것을 호소하였다.

리영수 제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사협) 회장은 자주통일의 대토를 열어놓는 지름길은 이미 실현을 통해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되고 오늘 우리 겨레가 더욱 절박하

70살이 되는 뜻깊은 올해의 중대한 사업으로 틀어쥐고 6.15공동선언의 기치마라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의 전향적국면을 마련하기 위한 문화예술창작활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리태일 제일본조선청년사공회 중앙상임간사회의 간사장은 공화국정부성명을 받아안은 전체 새 세대 제일본조선청년들이 통일위업에 헌성을 강그러 바치시어 우리 민족사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통일의지를 한치의 양보도 없이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확고한 담력에 커다란 감동을 금치 못하고있는 데 대해 언급하였다.

새 세대 제일본조선청년들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기치마라 북남관계발전의 전향적국면을 열어나가는 거족적인 운동에 적극 합세함으로써 조국해방 70살을 맞는 올해가 통일위업 수행에서 결정적인 해로 되도록 하는데 모든 힘을 다해나갈것이라고 그는 피력하였다.

그는 제일본조선청년들이 민족의 숙원인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모든 열정을 바쳐나감으로 조선천연으로서 시대에 걸친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것을 호소하였다.

리영수 제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사협) 회장은 자주통일의 대토를 열어놓는 지름길은 이미 실현을 통해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되고 오늘 우리 겨레가 더욱 절박하

공동선언을 리행할것을 남조선당국에 강력히 요구

스위스, 오스트리아단체들 성명 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에 스위스, 오스트리아단체들이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스위스조선위원회와 스위스주재사상연주소조는 16일 공동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6.15북남공동선언발표 15살에 즈음하여 발표한 성명에서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해나가는 데 다음과 같은 립장을 천명하였다.

1. 북남관계와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는 확고한 립장을 가져야 한다.
2.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고취하는 《세계통일》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3. 미국과 야합하여 벌리는 북침전쟁영습을 견여치워야 한다.
4. 북남관계개선에 유리한 분위기를 마련해나가는 데 다음과 같은 립장을 천명하였다.
5.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실천적조치들을 취해나가야 한다.
6. 15공동선언을 채택발표하신것은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김일성주석의 숭고한 뜻을 받들시어 정양상봉을 마련하고 6.15공동선언을 채택발표하도록 하였다.

리명박침보수세당이 6.15공동선언을 전면부정하고 현 남조선당국이 동족대결을 극도로 고조시키고자 하는 동족대결의 죄악의 상태에 처하였다. 북남관계는 남조선당국이 6.15공동선언을 리행하여 개선될수 있다. 남조선당국은 무엇보다도 더 이상 외세에 의존하지 말고 미국과 야합하여 벌리는 북침전쟁영습을 중지하여야 한다.

연출선언은 오직 조선민족자체의 힘에 의하여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시고 김일성동지께서 정립하신 조선통일3대원칙이 통일의 길을 밝혀주었다.

오스트리아 원에 있는 김일성주재사상연주소조는 17일 성명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고 우리 공화국의 립장을 지지하고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길에 나설것을 남조선당국에 요구하였다.

저은 역사적사변이다.》고 지적하였다. 6.15공동선언은 위대한 평등과 김정일동지들의 불면불욕의 로고와 선군정치기안어는 빛나는 결실이다.

6.15공동선언을 전면부정해나선 리명박침보수세당의 악랄한 책동으로 북남관계는 과거의 대결상태로 되돌아갔으며 이러한 파국상태는 오늘 더욱 엄중한 지경에 이르렀다.

남조선당국은 미국에 추종하여 반공화국압살책동에 미쳐 날뛰고있다. 남조선당국은 미국과 야합하여 벌리는 북침전쟁영습을 당장 중지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터무니없는 《인원》소동을 즉시 걸어치워야 할것이다. 특히 미국적인 반공화국 《국제통일》놀음을 당장 중지하여야 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성명에서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전향적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의제안을 내놓았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안들이 나라는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훌륭히 결실을 가져오기를 충심으로 바란다.

미국은 생화학무기를 개발하여 남조선 각 계가 규탄

영국 단체들 공동성명 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지지하여 영국군군정치연구협회, 영국주재사상연주소조, 영국조선친선협회가 16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기치마라 북남관계발전의 전향적국면을 열어나가는

한다》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통일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시어 정양상봉을 마련하고 6.15공동선언을 채택발표하신것은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가나, 나이지리아사 담화 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지지하여 16일 가나, 나이지리아인이사 담화를 발표하였다. 가나인종민주회 부총서 조지 라우슨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북남관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안아올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은 전적으로 지지한다.

6.15북남공동선언은 조선통일문제를 외세의 간섭이 없이 민족자체의 힘으로 해결할것을 확약한것으로 하여 조선민족뿐 아니라 진보적인인류에게 통일에 대한 희망과 확관을 안겨준 역사적문건이다. 진정으로 나라의 분열을 가슴아파하고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조선민족자체의 힘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정당한 제안을 외면하지 못했었다. 남조선당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당한 요구를 지체없이 받아들여야 하며 조선분열 70년이 되는 올해를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전향적국면을 열어나가는 뜻깊은 해가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이 미국의 고고도요격미사일 《싸드》를 끌어들이려고 분주함을 피워내고있다.

《싸드》의 남조선배비문제와 관련하여 그들은 미국의 어떤 요청도 없었으며 따라서 협정된것도 결정된것도 없다는 립장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얼마전부터는 《싸드》배비기도를 로물적으로 드러내고있다.

지난 10일 미군부의 한 인물이 빠른 시일안에 《싸드》배치를 남조선당국에 《공식요청》할것이라고 떠들고다 떠들며 자들이 파괴공작부대원들은 자들이 이미전에 남조선기공권합군사령관에게 《싸드》배치를 궁정적으로 고려하고있다는 것을 시사했었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언사는 미칠것 남조선집권자는 한 외세와의 회견에서 《국민의 안전》이니, 《최우선고려사항》이니 뭐니 하며 《싸드》배비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하였다. 이것은 《싸드》의 남조선배비와 관련하여 상전과 주주사이 에 모종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것을 말해준것이다. 《싸드》배비문제에 현실화되고있다는것이 내외여론의 일치한 평가이다.

피뢰당국자들은 《싸드》배비리유에 대해 미군상전들과 마찬가지로 《북의 핵, 미사일위협대비》라는 썩괴리를 붙여내고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싸드》가

남조선에 배치되면 탄도미사일들을 요격할수 있는 새로운 방어층이 구축되기때문에 《안보에 불명백한 득》이라는것이다.

하다면 정말로 《싸드》배비가 남조선에 리유적으로 되는가 하는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남조선 관계는 실로성에 있어서나 비용으로 놓고 볼 때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고 한결같이 주장하고있다.

제 발등을 찢는 미련한 처사

지난 5월 새정치민주연합소속 《국회》의원들은 2013년 미국에서 《싸드》포대를 시찰한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보고서에서 《싸드》가 남조선에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폭로하면서 실로성이 없는 《싸드》는 무용지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폭박하고 벼락을 퍼할수는 없는 법이다. 남조선의 한 언론은 《북의 신형방사포탄을 《싸드》로 막는다는것은 불가능하다. 수천톤에 달하는 북의 방사포는 강철포탄의 비를 쏟아붓는다. 《싸드》의 요격고도미도 날아오는 북의 신형탄두가미사일도 부지기수이다. 권투에서 남조선배비기 현실화되고있다는것이 내외여론의 일치한 평가이다.

피뢰당국자들은 《싸드》배비리유에 대해 미군상전들과 마찬가지로 《북의 핵, 미사일위협대비》라는 썩괴리를 붙여내고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싸드》가

대화를 파괴자, 평화유린자들의 정체

최근 남조선당국자들은 그 무슨 《일관한 대화계획》이니, 《호응》이니 하면서 쫓겨들 북침전쟁준비로 몰아넣는 사실이다. 지금 남조선호전포행은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800km로 더욱 늘일 총계말에 그 실현에 매달리고있다.

미국의 고고도요격미사일 《싸드》의 남조선배비기도 현실화되고있다. 지금 피뢰들은 남조선에 대한 《싸드》배비의 필요성을 운운하는 미국상전들의 비위를 맞추는데 급급하고있다.

폭로된바와 같이 얼마전 피뢰들은 그 누구에 대한 《도발적제》와 《선제타격》을 떠벌이면서 사거리를 500km로 늘인 미사일발사시험을 벌려놓았다. 이 미사일들은 그 누구의 《미사일발사시험》을 가발되던 선제 공격을 가하기 위한 《일제인》의 핵심요소이다. 남조선호전포행은 이 미사일발사시험과 관련하여 남조선인들은 집권자의 미국행위를 타격할수 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올해 말부터 피뢰공군미사일사령부들을 대대적으로 실전배비할것을 드러내놓았다.

이날 피뢰들은 지대공미사일에 대한 시험발사시험도 벌려놓았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남조선집권자가 미사일발사시험장에 낮찍을 들이밀고 《역제력부기》니, 《핵심전략력

6.15남측위원회 산하 단체들 민족의 자주와 평화를 위해 모든 힘을 다할것을 선언

남조선인내트신론 《통일뉴스》에 의하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원회)산하 로동, 농민, 청년학생, 언론, 학술본부 등을 비롯한 부문별단체들과 14개 지역본부가 15일 서울에서 《6.15-8.15공동운동기간실천활동》을 선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단체들은 조국해방 70살을 기념하는 민족공동행사의 성과적보장을 위해, 민족의 자주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힘

미국은 생화학무기를 폐기하라

남조선의 핵력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반미군물반일실현연합 시민사회대행회의 소속 성원들이 16일 서울 미군대사관앞에서 북침을 노린 미국의 생화학전쟁책동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탄저균을 남조선에 끌어들이던 범죄에 책임있는자들에 남조선정권군사령관과 미7공군사령관을 검찰에 고발할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미국의 《싸드》배치를 남조선에 무기를 팔아넘겨오는 술책이고 탄저균실험은 조선민족을 생체실험대상으로 삼으려는 기도라고 단죄하였다.

추진했으 나 현 보수 《정권》이 이를 가로막았다

단체들은 8.15를 계기로 또 다시 로동자통일축구대회회를 추진할것이라고 하면서 당국이 이를 막는다면 별미한 《정권》으로 락인하고 맞서싸울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러 단체들은 《5.24조치》철폐를 주장하고 미국의 세균전쟁기도철폐, 일본의 군국주의를 규탄하는 상징의식을 가졌다.

남조선 각 계가 규탄

남조선의 핵력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반미군물반일실현연합 시민사회대행회의 소속 성원들이 16일 서울 미군대사관앞에서 북침을 노린 미국의 생화학전쟁책동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탄저균을 남조선에 끌어들이던 범죄에 책임있는자들에 남조선정권군사령관과 미7공군사령관을 검찰에 고발할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미국의 《싸드》배치를 남조선에 무기를 팔아넘겨오는 술책이고 탄저균실험은 조선민족을 생체실험대상으로 삼으려는 기도라고 단죄하였다.

보수파당을 폭로

남조선인내트신론 《한겨레》에 의하면 남조선의 전쟁기대 산내 민간인학살 유해발굴 공동대책위원회가 17일 대전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반공화국대결을 고취하는 보수파당을 규탄하였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문화력시역제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자유회맹》을 동족대결의식을 고취하는 장소로 만들려고 획책하고있는데 대해 폭로하였다.

《자유회맹》은 《정부가 대전 교도소(이전 대전형무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자유회맹》 대전시청에 부지를 양도하여 건설한것이라고 밝혔다. 대전형무소사자는 명실공히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곳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자유회맹》사용의 특혜를 누린 《자유회맹》은 리승만이 만든 《반공회맹》의 후신이라고 비난하였다.

탄저균을 남조선에 끌어들이던 범죄에 책임있는자들에 남조선정권군사령관과 미7공군사령관을 검찰에 고발할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미국의 《싸드》배치를 남조선에 무기를 팔아넘겨오는 술책이고 탄저균실험은 조선민족을 생체실험대상으로 삼으려는 기도라고 단죄하였다.

미국의 범죄를 고발합니다



아시아지역의 긴장과 군비경쟁을 격화시키는 주범이라는 내외의 강력한 단죄규탄과 대외적고립뿐이다. 주변나라들이 《싸드》의 남조선배비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며 예민하게 반응하고있는것도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오죽했으면 남조선인민들이 《도대체 미국이 이웃들보다 못한 상황》이라고 개탄하고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미시대와 미국반역에 환장한 남조선집권세력은 《북의 핵, 미사일위협》을 구실로 미국의 《싸드》배비기에도 적극 추종해나가고 있다.

바로 그런것을 두고 도끼로 제 발등을 찢는다고 한다.

북남관계문제에서는 《퍼주기》니 뭐니 하며 수전노같이 놀아내는 자들이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뽐뿌지는것도 모르고 상전을 섬기고있다. 그러나 미국도 놀아나는 겨레의 저주와 비난을 어찌 면할수 있겠는가.

남조선집권세력은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미국의 《싸드》배비소동에 맞장구를 치는 미국반역행위를 당장 걸어치워야 한다.

미국으로부터 《싸드》를 들이밀어 준다면 그것으로 삼의 막바지에서 헤매고있는 수많은 군로인민들을 구제하는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니겠는가.

보수파당이 《싸드》의 도입으로 얻을것은 아무것도 없다. 있다면 그것은 조선반도와 동북

탄저균을 남조선에 끌어들이던 범죄에 책임있는자들에 남조선정권군사령관과 미7공군사령관을 검찰에 고발할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미국의 《싸드》배치를 남조선에 무기를 팔아넘겨오는 술책이고 탄저균실험은 조선민족을 생체실험대상으로 삼으려는 기도라고 단죄하였다.

대화를 파괴자, 평화유린자들의 정체

최근 남조선당국자들은 그 무슨 《일관한 대화계획》이니, 《호응》이니 하면서 쫓겨들 북침전쟁준비로 몰아넣는 사실이다. 지금 남조선호전포행은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800km로 더욱 늘일 총계말에 그 실현에 매달리고있다.

미국의 고고도요격미사일 《싸드》의 남조선배비기도 현실화되고있다. 지금 피뢰들은 남조선에 대한 《싸드》배비의 필요성을 운운하는 미국상전들의 비위를 맞추는데 급급하고있다.

폭로된바와 같이 얼마전 피뢰들은 그 누구에 대한 《도발적제》와 《선제타격》을 떠벌이면서 사거리를 500km로 늘인 미사일발사시험을 벌려놓았다. 이 미사일들은 그 누구의 《미사일발사시험》을 가발되던 선제 공격을 가하기 위한 《일제인》의 핵심요소이다. 남조선호전포행은 이 미사일발사시험과 관련하여 남조선인들은 집권자의 미국행위를 타격할수 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올해 말부터 피뢰공군미사일사령부들을 대대적으로 실전배비할것을 드러내놓았다.

이날 피뢰들은 지대공미사일에 대한 시험발사시험도 벌려놓았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남조선집권자가 미사일발사시험장에 낮찍을 들이밀고 《역제력부기》니, 《핵심전략력

한편 남조선당국은 술한 돈을 탕진하며 해외로부터 최선전정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있다. 피뢰발사시험장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6-2020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우리측 전지역에 대한 감시와 식별, 타격을 위한 각종 전쟁장비구입에 천문학적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게 된다. 남조선호전포행은 미국으로부터 400기의 《헬기콕터》이 미사일 100여기의 실험 《메트로트》미사일, 수십대의 공중유지승기를 들여오는 놀음을 벌려놓고있다. 한편 최선공중유지승기를 사들일 음모지도 보이고있다. 이것은 남조선당국이 벌려놓고있는 무력증강책동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집권세력이 외세와 야합하여 강행하는 도발적인 무력증강소동은 북남사이의 군사적대결을 격화시키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발발의 위험을 더욱 증대시키고있다.

현실은 남조선당국자들이 《대화》타령을 늘어놓고있는 것이 파멸적인 길이기때문에 그 길은 야말로 대화와 평화의 파괴자, 전쟁미화물이라는것을 다시한번 고백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심철영

조선로동당을 불패의 전위대로로 강화발전시키신 탁월한 정치가

경축 행사 여러 나라에서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1돐에 즈음하여 이란, 인도네시아, 핀란드, 도이칠란드에서 5일부터 13일까지의 기간에 파당회, 강연회, 영화감상회가 진행되었다.

영화감상회에서는 《당창건 기념담》, 《일심단결로 승리떨쳐온 배 조국》을 비롯한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행사들은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이란 알하디 이슬람교전경기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투철한 반제국주적립장을 지니신 위대한 정치가이시었다.

그이께서 이란과 조선사회의 친선관계발전과 반제국주위업에 쌓아올리신 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는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강성국가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시라.

핀란드공산주의자동맹 국제비서는 다음과 같이 강연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어왔으며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사회주의 위업을 굳건히 수호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는 날에남다라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사회주의보루인 조선을 옹호하고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성원하는것은 진보적인인류의 웅망한 의무이다.

도이칠란드민주공화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협회 부위원장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불패의 당으로,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다시시었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력사의 온갖 시련과 난관을 뚫고 조선의 근대와 인민을 이끌어 영광과 승리를만들아오셨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창건하시고 김정일동지께서 강화발전시키신 조선로동당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어 백승만을 펼쳤것이다.

핀란드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은 이채려했었다.

여러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행사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1돐에 즈음하여 쿠바, 페루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파당회, 도서 및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가 5일과 10일에 진행되었다.

행사장들의 정면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상상이 모셔져있다.

행사장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다.

또한 백두산천출원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적들과 변영하는 우리 조국의 참모습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영화감상회에서는 우리 나라 영화들인 《조국해방전쟁승

리기념관》, 《마식령스키장》이 상영되었다.

행사장에는 쿠바에 상주하고 있는 여러 나라 정당, 단체, 기관대표들, 배우의 각계 인사들이 초대되었으며 해당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직원들이 참가하였다.

쿠바에 상주하고있는 철레공산당대표는 파당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가들의 귀감이다.

이 세상 모든 영웅들중에서도 가장 걸출한 영웅이신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은 조선인민뿐 아니라 세계의 모든 혁명가들이 따라배우고 계승해나 가야 할 사명과 위업이다.

동유럽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

압살책동이 더욱 악랄해지고있던 지난 세기 말엽 조선의 존엄과 자주권, 사회주의를 수호하심것은 김정일동지의 업적중의 가장 큰 업적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외세에 의해 분열된 조선반도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투쟁에 거대한 공헌을 하시었다.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동지께서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계속 승리로 이끄시기를 충심으로 축원한다.

우리는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들께서 제시하시고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승해나가는 가장 공명정대한 방안에 힘써주시어주시기를 기대한다.

배루공산당(붉은 조국) 국제비서는 영화를 보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과 전후복구건설, 사회주의건설을 승리로 향도하여 나라를 오늘과 같은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켰다.

조선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모든 성과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당건설사상과 업적의 빛나는 결실이다.

오늘 조선인민은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수호와 강성국가건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승리를만들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이다.

김정일동지께서 승리적으로 령도하여오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고 계신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의 전진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을것이다.

스페리아의 공산당기관지 《프로레타르》 9일부는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것은 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사건

이다.

김정일동지는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발전시켜 부화하신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시다.

그이는 조선로동당을 영생불멸의 혁명정당으로, 선군혁명의 강위력한 정치적참모부로 강화발전시키신 걸출한 정치가,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파키스탄신문 《엘렉트 타임스》 2일부도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령도업적을 소개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풍고 멜레 풍고TV방송은 우리 나라 영화 《강성대국의 불모라》를 특별방영하였다.

신분, 방승이 특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1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신문, 텔레비전 방송이 특집하였다.

민주공산신문 《라브니르》 10일부는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활동사건문헌을 모시고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조선로동당》이라는 표제 밑에 《선군정치의 창시자, 사회주의수호자》, 《조국통일위업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 《조선민족의 위대한 태양 김정은》 등 여러 제목의 글들을 편집하였다.

특히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당을 사회주의위업수행에 앞장서도록 건설하는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로적들을 편하여 발표하는것을 비롯하여, 조선로동당을 혁명의 참모부로,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세계의 모든 진보적정당들과 대등배우자 할 귀감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었다.

그이의 로적들은 우리가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교과서이다.

특히 지난 세기말 사회주의나라들이 무너지고 제국주의자들의 공격의 화살이 조선에 집중될 때 《사회주의는 파타이디》, 《사회주의에 대한 웨밋은 허용될수 없다》 등 여러 고전적로적들을 발표하시어 사회주의의 진리성과 승리의 필연성을 천명하시었다.

또한 인류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하시고 선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수호전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특출한 정치적지력과 영도력에 의하여 조선통일의 리정표인 6.15 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채택되어 통일의 찬란한 전망이 열리게 되었다.

오늘 선군조선의 지위와 위인은 날을 따라 높아지고있다.

조선혁명의 진두에는 주체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서계신다.

김정은 각박께서는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따위끼스판정계 인사 담화 발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1돐에 즈음하여 따위끼스판정계 인사 담화 발표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51년전인 1964년 6월 1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것은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사건이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당이 통일단결된 불패의 전진으로, 로속하고 세련된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

시었다.

또한 조선로동당이 조선혁명을 승리로 전진시키나가는 조직자, 향도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현명하게 령도를 발표하시었다.

오늘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인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당을 힘있게 투쟁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고 그이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찬란한 인민이 있는 한 조선은 반드시 최후승리를 이룩하고야말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핵범인의 파렴치한 역사공원지정놀음

미국정부가 올해 여름으로 《멘하탄계획》관련시설들을 국립력사공원으로 정식 지정한다고 발표하였다.

《멘하탄계획》은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 미국이 세계패전의 야망을 품고 극비밀리에 추진해온 원자탄연구 및 개발계획이었다. 미국의 뉴저지주, 워싱턴주, 테네시주에 그 계획실현을 위한 원자탄연구소 및 플루토늄제조소들이 있었다고 한다.

미국은 원자탄을 제작한 후 1945년 7월 원자탄폭발실험을 진행하고 그해 8월에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투하하였다.

지금도 미국은 일본군국주의의 군사기지들이 밀집되어있는 곳들이 아닌 평민들이 살고있는 도시들을 핵화전적에 몰아넣고서도 원자탄투하가 제2차 세계대전중절을 앞당기고 미일 두 나라의 수많은 생명들을 구한 《역사적사건》인것처럼 뻔뻔스럽게 선전하고있다. 인류와 역사앞에 씻을수 없는 엄청난 대량살상범죄를 감행하고서도 그것을 《평화에 이바지한 공적》으로 광고하는것은 흑백을 전도하는데 이골이 난 세계최악의 핵전쟁방안자들이 펼치는 강도지경이다.

미국정부가 범죄적인 대학살행을 저지르는데 리용한 원자탄개발시설들을 큰 자랑거리나 되는것처럼 국립력사공원으로 만들겠다고 하는것은 정의와 합성에 대한 모랄적인 도전이고 우롱이다.

미국내의 반핵시민단체들도 《추악한 역사에 대한 청산》이라고 정부에 비난을 퍼부었다고 한다.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시장들도 미국정부의 조치를 원자탄에 의한 피해의 실태를 감추려는 행위로 된다고 규탄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는 국립력사공원이 《세계를 변화시킨 사변에 대해 리해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소》, 《파괴의 급속한 진보를 보여주는 곳》 등으로 된다고 황실수설하고있다.

미국의 원자탄개발이 세계를 변화시킨것은 아무것도 없다.

제2차 세계대전말기 일본의 패망은 이미 정해졌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미국의 원자탄투하가 없었다 해도 일본은 패망의 운명에서 벗어날수 없게 되어있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 반일 무장투쟁이 계속되어있었고 그 투쟁이 고조기에 이르고있었으며 국제적인 반일전선이 형성되어있었다.

미국의 원자탄개발이 세계를 변화시킨것이 아니면 핵위협공갈의 시대, 핵군비경쟁의 시대를 만들어낸것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미국의 원자탄개발자들은 과학의 급속한 진보를 보여주는 곳이 아니라 과학기술을 전쟁도발과 인류내태학살, 폐전실현에 악용해온 범죄현상이라는 것을 폭로하는 곳으로 되어야 한다. 인류의 문명, 복귀중전에 쓰여야 할 핵기술을 세계제 패야망실현에 리용한 미국의 책들은 두고두고 저주를 받아야 할 반인륜적죄악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인류에게 최초로 핵참화를 들썩은 죄악을 왜 자랑거리처럼 늘어놓는 놀음을 벌려놓았는가.

앞으로도 인류에게 핵참화를 계속 들켜우겠다는 것이다. 실지로 제2차 세계대전종식후 미국이 원자탄을 사용하며 한 시도는 해아놓지 않았다.

우리 공화국은 지난 조국해방전쟁때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언제 한번 미국의 핵위협공갈에 서 벗어나지 않았다. 날조논은 물론 일본 등 조선반도주변에는 미국의 수많은 핵무기들이 전개되어 우리를 겨냥하고있다.

지난 70년간이 보여주는 력사의 교훈은 핵억제력이 없으면 언제든지 제2, 제3의 핵참화가 일어나게 된다는것이다.

우리가 핵억제력을 보유하는것은 천만년 정당하며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시비질할 권리가 없다.

핵억제력을 억척같이 다칠 때 평화를 지킬수 있다는것이 추악한 핵범인의 국립력사공원지정놀음을 보면서 우리 근대와 인민이 다시한번 절감하게 되는 진리이다.

이제 제2차 세계대전말기 일본의 패망은 이미 정해졌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미국의 원자탄투하가 없었다 해도 일본은 패망의 운명에서 벗어날수 없게 되어있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 반일 무장투쟁이 계속되어있었고 그 투쟁이 고조기에 이르고있었으며 국제적인 반일전선이 형성되어있었다.

미국의 원자탄개발이 세계를 변화시킨것이 아니면 핵위협공갈의 시대, 핵군비경쟁의 시대를 만들어낸것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미국의 원자탄개발자들은 과학의 급속한 진보를 보여주는 곳이 아니라 과학기술을 전쟁도발과 인류내태학살, 폐전실현에 악용해온 범죄현상이라는 것을 폭로하는 곳으로 되어야 한다. 인류의 문명, 복귀중전에 쓰여야 할 핵기술을 세계제 패야망실현에 리용한 미국의 책들은 두고두고 저주를 받아야 할 반인륜적죄악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인류에게 최초로 핵참화를 들썩은 죄악을 왜 자랑거리처럼 늘어놓는 놀음을 벌려놓았는가.

앞으로도 인류에게 핵참화를 계속 들켜우겠다는 것이다. 실지로 제2차 세계대전종식후 미국이 원자탄을 사용하며 한 시도는 해아놓지 않았다.

우리 공화국은 지난 조국해방전쟁때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언제 한번 미국의 핵위협공갈에 서 벗어나지 않았다. 날조논은 물론 일본 등 조선반도주변에는 미국의 수많은 핵무기들이 전개되어 우리를 겨냥하고있다.

지난 70년간이 보여주는 력사의 교훈은 핵억제력이 없으면 언제든지 제2, 제3의 핵참화가 일어나게 된다는것이다.

우리가 핵억제력을 보유하는것은 천만년 정당하며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시비질할 권리가 없다.

핵억제력을 억척같이 다칠 때 평화를 지킬수 있다는것이 추악한 핵범인의 국립력사공원지정놀음을 보면서 우리 근대와 인민이 다시한번 절감하게 되는 진리이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전국위원회가 2일 인터넷트롬페지에 《아이들은 나라의 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아이들은 왕으로 떠받들려우고있다고 하면서 평양로동소년단중앙집행위원회가 2일 인터넷트롬페지에 《아이들은 나라의 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아이들은 왕으로 떠받들려우고있다고 하면서 평양로동소년단중앙집행위원회가 2일 인터넷트롬페지에 《아이들은 나라의 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아이들은 왕으로 떠받들려우고있다고 하면서 평양로동소년단중앙집행위원회가 2일 인터넷트롬페지에 《아이들은 나라의 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아이들은 왕으로 떠받들려우고있다고 하면서 평양로동소년단중앙집행위원회가 2일 인터넷트롬페지에 《아이들은 나라의 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아이들을 왕으로 떠받드는 조선 나이제리아단체 인터넷에

조선의 명승지들마다에서는 훌륭히 꾸민 조년단야영소들을 볼수 있다.

송도원국조선년단야영소가 2일 인터넷트롬페지에 《아이들은 나라의 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아이들은 왕으로 떠받들려우고있다고 하면서 평양로동소년단중앙집행위원회가 2일 인터넷트롬페지에 《아이들은 나라의 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아이들은 왕으로 떠받들려우고있다고 하면서 평양로동소년단중앙집행위원회가 2일 인터넷트롬페지에 《아이들은 나라의 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조선의 명승지들마다에서는 훌륭히 꾸민 조년단야영소들을 볼수 있다.

송도원국조선년단야영소가 2일 인터넷트롬페지에 《아이들은 나라의 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아이들은 왕으로 떠받들려우고있다고 하면서 평양로동소년단중앙집행위원회가 2일 인터넷트롬페지에 《아이들은 나라의 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아이들은 왕으로 떠받들려우고있다고 하면서 평양로동소년단중앙집행위원회가 2일 인터넷트롬페지에 《아이들은 나라의 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조선의 명승지들마다에서는 훌륭히 꾸민 조년단야영소들을 볼수 있다.

송도원국조선년단야영소가 2일 인터넷트롬페지에 《아이들은 나라의 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아이들은 왕으로 떠받들려우고있다고 하면서 평양로동소년단중앙집행위원회가 2일 인터넷트롬페지에 《아이들은 나라의 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아이들은 왕으로 떠받들려우고있다고 하면서 평양로동소년단중앙집행위원회가 2일 인터넷트롬페지에 《아이들은 나라의 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조선의 명승지들마다에서는 훌륭히 꾸민 조년단야영소들을 볼수 있다.

송도원국조선년단야영소가 2일 인터넷트롬페지에 《아이들은 나라의 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아이들은 왕으로 떠받들려우고있다고 하면서 평양로동소년단중앙집행위원회가 2일 인터넷트롬페지에 《아이들은 나라의 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아이들은 왕으로 떠받들려우고있다고 하면서 평양로동소년단중앙집행위원회가 2일 인터넷트롬페지에 《아이들은 나라의 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서방의 경제제재가 실패하였다고 언명

이란대통령 하산 루하니가 17일 내각회의에서 언명하면서 자기 나라에 대한 서방명장들의 경제제재가 실패하였다고 언명하였다.

그는 서방의 끈질긴 제재속에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나라의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전반적인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서방의 제재가 이란의 경제발전에서 일시적인 난관을 조성할수 있는지만 나라의 진보는 절대로 막지 못했기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이란대통령 하산 루하니가 17일 내각회의에서 언명하면서 자기 나라에 대한 서방명장들의 경제제재가 실패하였다고 언명하였다.

그는 서방의 끈질긴 제재속에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유엔인권리사회의 보고서 배격

에리트레아 위무성이 10일 성명을 발표하여 나라의 《인권문제를 결코 유엔인권리사회의 보고서에 배격하였다.

8일 유엔인권리사회의 조사위원회가 에리트레아에서 세계적으로 대대적인 인권원행위와 반인륜적범죄가 저질러지고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고 언명

세계적으로 심각한 지구온난화문제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문제 심각하게 제기되고있다.

15일 국제에네르기기구는 온실가스방출량의 증대로

여러 나라들 협조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최근 력사의 위국하고 제2차 세계대전결과를 재검토하려는 책동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며 사업을 계속 70년이 되는 올해에만 국한시킬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진척시킬데 대해

안전보장관련법안 반대

일본자민당 전 부총재 야마사키를 포함한 이 중의원 의원 4명이 최근 한 회회에서 당국에 강행추진하는 안전보장관련법안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들은 중의원에서 안전보장관련법안이 심의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면서 헌법해석을 일개 내각이 제멋대로 변경하는것을 용인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법안제정은 일본이 전쟁을 하지 않는 나라로 부러 군사력을 행사하는 나라로 전환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으로서 절대로 침묵을 지킬수 없다고 그들은 밝혔다.

안전보장관련법안을 반대하여 시위를 벌리는 일본인들

안전보장관련법안을 반대하여 시위를 벌리는 일본인들

후안무치한 일본의 세계문화유산등록책동

올해는 일제때 70년이 되는 해이다. 세계는 일본이 더 늦기 전에 정성을 차리고 올해를 회담을 과거사를 청산하는 계기로 만들것을 요구하고있다. 전 세계인 일본이 시대앞에, 력사앞에 지닌 도덕적, 법적의무를 다하는 길, 진정한 평화국가, 정상국가로 되는 길이 과거를 청산하는데 있기때문이다.

하지만 패망 70년을 계기로 일본방을 배회하는것은 《대동야공명련》의 망명뿐이다.

《대동야전쟁은 정의롭고 정당한것이었다.》라고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의 침략전쟁을 변호하였던 특급전력사 도조이 이 년두리를 전라도 받아들이는 일본국우익반동들의 책동이 그 어느때보다 로골화되고있다.

과거사를 외곡, 부정하다 못해 이제는 범죄의 증거물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 놀음까지 벌리고있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해주고있다.

또한 이것은 인류문명에 대한 모독이며 전쟁의 참혹속에서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한 사람들에게 대한 참상을 잊고있는 우롱이다.

특히 전쟁대포로로 내몰린 《자살특공대》 대원들의 목숨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겠다는것은 일제의 범죄적전쟁을 미화하는것이며 그것은 곧 과거침략전쟁정사를 정당화하는것으로 된다.

일본의 한 이름있는 작가는 소설에서 《자살특공대》에 대해 이렇게 썼다.

...인간을 무기로 사용한 구 일본군부의 위악에 의하여 그는 청춘을 상실했다. 그의 청춘은 공포였고 절망이었고 충격적은 죽음이었다. 그는 살았어도 전쟁에 의하여 잃어버린 청춘은 영원히 되돌아오지 않는다. ...

그렇다. 과거 일본의 침략전쟁에 의하여 슬한 일본청년들이 무모한 죽음을 강요당하였다. 청춘을 빼앗아간것은 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자살특공대》 대원들의 죽음을 《영웅적인 희생》으로 묘사한 영화를 만들어 일본의 침략전쟁정사를 미화하고있다. 일본에서 이 영화는 대대적으로 상영되고있다.

문제는 일본집권자가 이 영화를 보고 찬사를 아끼지 않은 것이다. 그는 특별히 이 영화를 보고 《전투정신의 영향분》을 섭취하였으며 이 영화가 자기를 《매우 감동시켰다.》고 격렬하였다. 이에 뒤질셈이다. 이 한 각료는 《일본의 평화와 변영은

유치하고있으며 이 나라 경제에서 농업은 가장 빨리 발전하는 부문으로 되었다.

로씨야수상은 자국의 대응조치가 오래동안 다량의 식료품을 수입해야 한다고 고집하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도 식료품을 자급자족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것을 증명해주었다고 언명하였다.

로씨야는 올해에도 농업부문에 대한 국가의 지원공약을 확대하고있다.

로씨야가 에네르기자원을 수출을 위한 여러 대책들을 세우고있다. 서방의 제재속에서도 이 나라의 에네르기자원은 외국기업들의 관심사로 되고있다. 로씨야가 펄드끼에와 《펄드끼에호름》 가스수송관건설계획을 추진하고있는것이 그 대표적사례이다.

로씨야에서 위기극복을위한정부계획의 80%이상이 원만히 수행되었으며 여러 부문에 대한 자금투자가 현재 실행중에 있다.

지난해 리방에산지출은 1999년에 비해 22배 장성하였다.

로씨야의 국방력이 비정상적 강하고있다.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랍나라들과의 군사적협력에서 커다란 진전을 이룩하고있다. 이것은 미국 등 서방의 대로씨야화원형성에 파멸기를 내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된다.

유치하고있으며 이 나라 경제에서 농업은 가장 빨리 발전하는 부문으로 되었다.

로씨야수상은 자국의 대응조치가 오래동안 다량의 식료품을 수입해야 한다고 고집하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도 식료품을 자급자족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것을 증명해주었다고 언명하였다.

로씨야는 올해에도 농업부문에 대한 국가의 지원공약을 확대하고있다.

로씨야가 에네르기자원을 수출을 위한 여러 대책들을 세우고있다. 서방의 제재속에서도 이 나라의 에네르기자원은 외국기업들의 관심사로 되고있다. 로씨야가 펄드끼에와 《펄드끼에호름》 가스수송관건설계획을 추진하고있는것이 그 대표적사례이다.

로씨야에서 위기극복을위한정부계획의 80%이상이 원만히 수행되었으며 여러 부문에 대한 자금투자가 현재 실행중에 있다.

지난해 리방에산지출은 1999년에 비해 22배 장성하였다.

로씨야의 국방력이 비정상적 강하고있다.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랍나라들과의 군사적협력에서 커다란 진전을 이룩하고있다. 이것은 미국 등 서방의 대로씨야화원형성에 파멸기를 내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된다.

위기를 기회로 앞선다

오늘의 세계

최근 로씨야수상 메드베데브가 제 17차 세계어출판물대회에서 연설이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다.

그는 연설에서 서방의 제재는 로씨야가 아시아나 라틴아메리카의 긴밀한 협력에 더 나아가도록 추동하였다고 하면서 제재를 실시하고있는 모든 나라들에 사의를 표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이것은 진정으로부터 우리나라오는 말이라고 덧붙여 설명하기까지 하였다.

그들은 이에 대해 상세히 전하면서 로씨야수상의 연설은 미국 등 서방에 대한 신랄한 야유로 된다고 평하였다.

가관은 서방이 로씨야의 야유와 조소에 변명의 대꾸 한다

최근 로씨야수상 메드베데브가 제 17차 세계어출판물대회에서 연설이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다.

그는 연설에서 서방의 제재는 로씨야가 아시아나 라틴아메리카의 긴밀한 협력에 더 나아가도록 추동하였다고 하면서 제재를 실시하고있는 모든 나라들에 사의를 표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이것은 진정으로부터 우리나라오는 말이라고 덧붙여 설명하기까지 하였다.

그들은 이에 대해 상세히 전하면서 로씨야수상의 연설은 미국 등 서방에 대한 신랄한 야유로 된다고 평하였다.

가관은 서방이 로씨야의 야유와 조소에 변명의 대꾸 한다

최근 로씨야수상 메드베데브가 제 17차 세계어출판물대회에서 연설이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다.

그는 연설에서 서방의 제재는 로씨야가 아시아나 라틴아메리카의 긴밀한 협력에 더 나아가도록 추동하였다고 하면서 제재를 실시하고있는 모든 나라들에 사의를 표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이것은 진정으로부터 우리나라오는 말이라고 덧붙여 설명하기까지 하였다.

그들은 이에 대해 상세히 전하면서 로씨야수상의 연설은 미국 등 서방에 대한 신랄한 야유로 된다고 평하였다.

가관은 서방이 로씨야의 야유와 조소에 변명의 대꾸 한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